

1

야마토 황족에 관한 일본 신화(神話)들의 근원

커어클랜드(1981)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 역사의 뿌리가 아시아 대륙, 특히 한국과 만주에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21년에 벌써 기다(喜田貞吉)는, 4세기께 한반도에 세워진 강력한 세 왕국과, 거의 동시에 나타난 첫 일본 국가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 세 나라 가운데서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는, 중남부 만주에 고향을 가진 부여(夫餘)족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일부가 창건 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역사가들과 민속학자들은, 옛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여의 전설들이, 고대 일본의 특정 신화들이나 의사(擬似) 역사적 기록들과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지적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서술되어 있는 일본 신화는, 하늘나라로 부터 신들의 강림과 재림 이야기와, 일본열도 정복의 임무를 띠고 신들에 의해 각지로 파견되는 반신(半神)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실려 있는 이들 신화가 반(反) 역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 사실들이 수용될 수 있는 납득할만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야마토(大和) 통치자들이 경험했던 자기존재의 재정의를 둘러싼 위기의식에 대해, 하나의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에가미(1964)는 다음과 같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화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하늘의 신들이 일본 땅(이즈모와 큐우슈우)에 내려와, 원주민인 땅의 신들을 무찌르고 지배했다; 스사노오는 이즈모(出雲)로 건너가기 전에 한 동안 신라에 머물렀다; 그리고 니니기(瓊瓊杵)가 쓰쿠시(筑紫) 지방의 히무카(日向)에 있는 다카치호(高千穂) 산봉우리로 내려오는 장면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특별히 한국이 언급된다; 다시 말해서, “이 곳은 한국(韓國)을 향하고 있다.” 그런 다음, 에가미는 “우리가 한국을 천신들의 원 고향으로 간주 한다면, 이 신화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해 질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하늘의 신 아마쓰 카미(天津神)과 땅의 신 구니쓰 카미(國津神)를 구별하고 있다. 땅의 신(地祇)은 토착의 원주민 집단을 나타내고, 하늘의 신(天神)은 태양의 여신(天照大神)을 정점으로 하는 황족의 조상을 나타내는데, 에가미에 의하면 후자가 바로 외래 침공자들 이라는 것이다.

에가미는 다시 고구려 국가의 창건에 관련해서 주몽(朱蒙)에 대한 전설을 검토한다: 고구려 창건자는 고국 부여(夫餘)를 떠나, 새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강을 건너게 된다; 그는 한 마리 거북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널 수 있다; 이 창건자는 천손으로서, 하늘을 아버지로 가졌고, 강의 신의 딸을 어머니로 가졌다(天孫河伯甥) 에가미는 그 다음, 이 전설과 진무(神武)의 전설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유사점을 지적한다: 즉, 나라의 창건자는 바다를 건넌다; 거북의 등에 탄 사람이 창건자를 안내하기 위해 나타난다; 이 창건자는 하늘의 자손들(天孫)의 한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의 딸이다.

스제스니아크(1951)는 말한다: “수무(朱蒙)왕의 신화는 진무 아버지의 신화와 같다. 일본 신화의 퉁구스 적인 측면은, 확실히, . . . 퉁구스 문화의 증거인 동시에, 퉁구스 족이 살고 있던 대륙의 그쪽 지방으로 부터 아주 가까이 위치한 일본 열도에, 선사(先史)시대 주민의 주요 집단이 이주해 왔다는, 그 오랜 옛시절의 증거다.

. . . 이렇듯 일본 여러 섬의 선사시대 주민들 속에 통구스적인 요인이 유행 했다는 것은, 수무(주몽) 신화의 분석에 의해 뒷바침 되고 있다.”

에가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부여와 고구려하고 똑같은 근원에서 나온 건국 전설은, 천신, 특히 그들중 천손 혹은 황족이라고 부르는, 이민족에 의해 일본으로 도입되었다. 또 그들이 쓰쿠시(筑紫)로부터 세토 내해의 해안을 따라 킨키(近畿) 지방으로 이동했을 때, 그 곳에 일본 국가를 창건 한다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었고,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옛날의 건국 전설이 새로운 사실에 일치하도록 재구성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신 혹은 황족으로 알려진 이민족이, 부여와 고구려의 그것과 같은 근원에서 나온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에가미는 그들의 이주경로가 만주 동부 혹은 한국 북부에 있는 그들의 원 고향에서 시작하여, 한국 남부와 큐우슈우를 거쳐 킨키 지방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가미는 그들이 한국 남부의 미마나(任那, 즉 加那) 지역으로부터 일본으로 곧장 건너왔을 가능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에가미(19)는, 하늘의 신들 이라고 부르는 침공자들이 가야(미마나) 지역을 거쳐서 건너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왜냐 하면 6가야[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관한 한국측 사료 예서나, 또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국가 창건 전설에 관한 일본측 사료에 서나, 이 신들은 천신으로부터 그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고서 내려오는 데, 그들은 모두 어떤 형태의 천에 싸여져서 내려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두 비슷비슷한 이름의 땅, 다시 말해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는 구지후루(久士布流) 혹은 구시히, 또 가락국기에서는 구지(龜旨)라는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다.¹

¹에가미는, 구지후루(久士布流)의 후루(벌)는, 한국어에서 「마을」이라는 뜻이므로, 구지후루는 바로 「귀지(龜旨) 마을」이라는 뜻이며, 구지후루[구시히]라는 장소를 말하는 「소호리」는, “백제의 수도 소부리(所夫里), 신라의 수도 서벌(徐伐), 그리고 현재의 「서울」의 경우처럼 수도라는 뜻의 한국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에가미는 다시 논평한다: “이 모든 경우에, 일본어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한국어로서는

일본신화의 근원에 대한 연구는, 민족의 기원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서 전개되어 왔다. 오오바야시(大林太良, 1977)는 일본 신화의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 논하면서, 특히 진무의 동방 원정 전설에 초점을 맞추어, 왕권(王權)의 기원에 대한 일본 신화를 상세하게 비교 연구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일본 왕권 신화에 관한 오오바야시 연구의 중심 부분을 소개하기로 한다.

왕권의 근원에 관한 오오바야시의 서술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고사기 에서나 일본서기 에서나, 일본의 신화는. . . 일본을 통치하는 집안인 황실(皇室)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펼쳐진다. 그 신화 체계는, 실로 황실의 기원에 끈질기게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일본 신화는, 아주 노골적 이리만큼 왕권-기원 신화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오오바야시는, “일본 신화”라는 용어가 보통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의 시대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관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신화적 사상과 주제는 초기의 천황들을 다루고 있는 후대의 이야기에서도 관찰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아마테라스(天照)의 손자 니니기(瓊瓊杵)가 하늘에서 히무카(휴우가, 日向)의 다카치호(高千穂) 봉우리에, 땅의 통치자로 내려와 황실의 시조가 되었다고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편 단군 신화(檀君神話)와 가락(駕洛) 왕국의 건국 신화에 의하면, 한국의 통치자도 하늘에서 산 봉우리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오오바야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일본과 한국의 왕권 신화가 아주 가까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로 간주한다.

가아디너(1988)는 구삼국사(舊三國史)에 실려 있는 주몽(朱蒙)의 건국 신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해준다: “천제(天帝)가 부여(夫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天降) 지배자(자기자손, 天之孫)를 위해 동쪽으로 자리를 비키라고 경고 한다. . . 하늘의 아들(天之子) 해모수(解慕漱)가 [기원전 59년에] 부여의 옛 도움으로

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내려온다. . . 이 대목에서 해모수와 태양과의 연관을 강조해 볼만하다. 해모수가 태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그의 이름 [“해”는 옛 한국말로 “태양”이라는 뜻이다]뿐 아니라, 인간세계와 하늘나라를 되풀이해 왕래하는(朝夕恣升降) 그의 행동에서 시현되고 있다. . . 압록강변에서 해모수는 천제(天帝)의 며느리(라고 적혀 있는) 강의 신(河伯)의 딸 유화(柳花)와 결혼한다. . . [이어 우리는] 주몽 [부여 말로 “훌륭한 사수”]의 실제 탄생 [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나중에 동명왕(東明王)이 된다. . .”²

가아디너는 다시 이규보(李奎報)가 사용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 . 천제는 그의 아들(天帝子)을 부여의 옛 도움터로 내려 보낸다. 그는 해모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따르는 사람 백여인은 모두 흰 고니를 탔다. . . 웅심산(熊心山)에 머물렀다가 10여일이 지나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오우관(烏羽冠)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龍光劍)을 찼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통치자에 대한 이 같은 이야기를, 다시 야마토(大和) 왕권에 관한 신화가, 백제 사람들도 자신들의 조상으로 모셨던, 그 고구려 창건자에 대한 신화와 유사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가아디너(1988)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삼국사(舊三國史)는, 책 자체가 없어 버렸다. . . 이 책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마찬가지로 세 왕국의 역사를 서술했을 것이 틀림없지만, 그 책에 대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이규보(李奎報)의 [1193년] 발견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계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東明王本紀)를 보고 감동하여 지금 이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를 썼다는 것이다. 이 시(古律詩)는 이규보의 작품집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제3권에 남아 있으며, 거기에는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 원전에서 발췌한 인용문이 함께 실려 있다. . . 이규보는 고구려 창건자에 관한 이야기가, 위서(魏書)와 같이 권위있는 중국 사서에 개요 형식으로 되풀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 .” 가아디너는 다시 지적한다: “3세기의 위략(魏略)에는, 동명왕이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의 창건자로 되어 있다. 분명히 4세기의 어느 때에. . . 고구려왕들은 그들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원래 부여가 기원이었던 신화를 도용하여, 자기들 자신 가계의 신성(神聖)한 기원을 개진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오오바야시(1977)는 진무의 [큐우슈우에서 야마토 지방으로] 동방원정에 관한 전설이, 고사기에 써 있는 내용과 일본서기에 써 있는 내용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일본서기 에서는 동방원정을 수행한 주인공이 끝까지 이하레비코(磐余彦, 神武)인데 반해서, 고사기에서는 진무와 그의 형 이쓰세(五瀬)의 두 주인공이 있다. 이쓰세는 전설의 전반부—항해에 관한 부분—의 주인공인데, 상륙 직후 도미비코와의 전투에서 전사한다. 이하레비코는, 이야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육상 전투의 주인공이며, 정복에 성공한다. 오오바야시는 진무의 동방원정에 관한 전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요약하고 있다: “바다의 인물인 형과 육지의 인물인 동생은, 땅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형은 실패하여 죽고, 동생은 성공하여 왕국을 세운다.”

오오바야시는 이어 백제의 건국 신화로 눈을 돌리는데, 이들 백제의 통치자들은 그 근본이 부여와 고구려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의 시조 주몽(朱蒙)은 북부여로부터 달아나 졸본부여(卒本夫餘)로 피신했으며, 거기서 영주의 딸과 결혼하여 비류(沸流)와 온조(溫祚) 두 아들을 얻는다. 하지만 그 후,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얻은 아들 유리(類利)가 이곳에 피난을 오게 되고, 주몽은 나중에 온 이 유리를 왕세자로 삼는다. 그래서 비류와 온조는, 추종자들과 함께 졸본부여 [이것이 고구려가 된다]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들은 새 영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간다. 한산(漢山)에 도착한 그들은 현재의 서울 북쪽에 있는 부아악(負兒岳)에 올라가, 사방의 지세를 살피면서 정착할 곳을 물색한다. 형 비류는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안 지대로 가서 나라를 세운다. 동생 온조는 내륙의 하남(河南)에 있는 위례성(慰禮城)에 도움을 정하고, 십제(十濟)라는 나라를 세운다. 결국, 바닷가에 가서 살려던 비류는, 땅이 습하고 물은 소금기가 있어, 그곳에 영구히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동생이 정착한 하남의 상태를 살펴보러 왔다. 하남의 위례성이 번창하고, 사람들이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을 본 비류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자기의 단견이 너

무나 부끄러워 자살하고 만다. 비류의 부하들은 온조의 추종자들과 동맹을 맺었으며, 이것이 백제가 된다.

오오바야시는 백제의 건국에 관한 이 전설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바다의 인물인 형과 육지의 인물인 동생은 역시 땅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형은 실패하여 죽은 데 반해, 동생은 성공하여 왕국을 세우고, 이 왕조의 시조가 된다. 이 기본 구성은, 진무(神武)의 동방 원정에 관한 전설과 똑같은 것이다.”

오오바야시는 이어, 진무 원정에 관한 전설과 고구려 건국에 관한 전설 사이의 유사성을 검토 하면서, “고구려 건국에 관한 전설은, 자기들의 근원이 부여와 고구려라는 백제 지배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고사기는, 진무가 하야스이노토 해협을 지나고 있을 때, 사오네쓰가 거북을 타고 나타나, 바다에서 원정대의 길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에가미(1964)는 이미 이 전설을 고구려 건국 때의 주몽(朱蒙)에 관한 이야기와 비교한 바 있다 — 주몽은 그를 위해 다리를 놓아준 거북들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넜다.³

오오바야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종류의 동물들 — 말하자면, 거북과 곰과 까마귀가 — 진무의 이야기에 나타나고, 또 한편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 다시 말해서 짐승과 거북과 새가 — 주몽의 이야기에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시, 이 동물들 가운데 거북과 까마귀는 적극적으로 진무의 원정군을 돕고, 육지의 동물 곰은 부정적인 가치를 가졌다는 것과, 또 주몽의 이야기에서도 거

³에가미(1964)는, 위략(魏略)과 후한서(後漢書)의 동이(東夷)와 부여편에 나오는 부여의 창건자 동명왕(東明王) 얘기를 한다. 동명왕이 고국에서 도망칠 때 시연수(염시수)라는 강에 이르렀다. 그가 활로 물을 치니 거북 한 마리가 나타났다. 동명왕은 거북의 등을 다리처럼 이용하여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에가미는 또 부여계의 고구려 창건자 주몽(朱蒙)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에가미는 결론을 내린다: “부여와 고구려의 똑같은 근본에서 나온 건국 신화가 이민족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는데, . . . 그 이민족은 하늘의 신, 특히 천손(天孫) 또는 황족으로 알려져 있다.”

복과 새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반면 짐승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주몽은 알에서 태어나기 전 마굿간에 버려졌었는데, 그 마굿간의 네발달린 짐승들은 알을 밟아서 그를 죽여버렸을 수도 있었다. 또 주몽이 다른 왕자들과 함께 사냥을 나가면, 유독 그 만이 많은 사슴을 잡아 오는데, 이것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오오바야시는 이 에피소드 또한, 주몽에 관한 이야기에서 육지 동물이 부정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한다. 새는 주몽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주몽이 떠난 뒤, 그의 어머니(神母)가 두 마리 비둘기의 형태로 아들이 잊고 간 보리 씨앗을 전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오바야시는, “이 두 이야기 사이의 구조상 유사성은, 이들을 체계화 시켜 보면 명확히 들어난다”고 결론 짓고 있다.

오오바야시는 또, 일본 신화에는 한국의 신화가 그렇듯이, 하늘과 바다 사이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하늘과 강이 결혼하고 헤어지는 이야기가, 해모수(解慕漱)와 하백(河伯, 강의신)의 딸과의 결혼을 다루는 신화에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주몽의 부모가 된다.⁴ 일본 신화에도 산과 바다의 결혼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진무의 동방원정 이전의 휴우가(日向)의 신화에 나타난다. 말하자면, 야

⁴일본서기의 닌토쿠(仁德)조 에는(NI: 281), 감독의 건설과 양쪽둑의 연결문제에 관련하여 하백(河伯, 강의신)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 “그 때 천황(닌토쿠)은 꿈을 꾸었는데, 한 신이 나타나서 일러 준다 — ‘무사시(武藏)사람 고와쿠비와 가하치(河内)사람으로 고로모노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하백에게 희생으로 바쳐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닌토쿠)는 그들을 강의 신(河神)에게 희생으로 바쳤다.”⁴⁰ 일본서기는 또 고오고쿠(皇極)조 에서도 하백을 언급하고 있다(NII: 174-175): “마을 하후리(坂部)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고장에서는 여러[신토]신사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말이나 소를 죽였고, 어떤 고장에서는 자주 장터가 바뀌었으며, 혹은 하백[강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⁴¹ 주몽(朱蒙)의 할아버지인 하백(애스턴은 하백을 “강의 신”이라고 번역했다)에 관한 이같은 언급을 최재석(1988: 20)도 지적하고 있다.

마사치(山幸)가 바다에 가서 해신의 딸 오요타마와 결혼한다. 그는 아마쓰 카미(天津神, 하늘의 신)의 아들 신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오바야시에 의하면, 이 신화와 해모수 신화와의 사이에는 피상적인 차이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를 기초로, 오오바야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진무의 동방 원정에 관한 신화와 그에 앞선 휴우가(日向) 신화를 살펴보면, 일본 신화와 고구려 및 백제 왕국의 건국신화 사이에 놀라운 1대1 대응관계가 드러난다. 이것은 일본의 지배 계급 문화의 근원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 . 왕권(王權) 신화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제공해 준 군주문화는, 고분(古墳)으로 특징 지워지는 문화가 존재하게 되었던 5세기경에, 한국으로 부터 건너 왔다고 나는 믿는다.”⁵

KEJ(1983: 2, 203)는 웨브가 쓴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천황]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마토 4세기 말 또는 5세기 초에 일본을 침공했다는 대륙의 기마 민족이, 거대한 분묘를 도입하고, 오늘날 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천황 제도를 확립 했을지 모른다. 어쨌거나 고분 문화의 거대한 분묘들은, 천황제도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물질적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⁵오오바야시는 부연한다: “그러므로, 고대 일본 왕권(王權) 신화의 일부와 인도-유럽 신화 사이의 유사성은, 알타이 유목(遊牧) 문화를 매체로 해서 한반도를 경유해 일본으로 들어온 지배 계급 문화의 일부로서, 인도-유럽 신화가 이 나라에 전해졌다는 사실로 설명해 볼수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